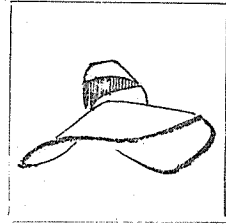


산부인과의 피부부과의 의사에 따르면 클어본

기미
 과
 그
 예방
 과
 그
 대책

산부인과에서 본

기미와 피부변화



姜 信 明

임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피부의 변화 또는 피부질환으로 기미(褐色斑, 異常皮膚着色), 가림증(소양증) 및 흑색증(黑色腫) 혹은 여드름(좌창)이 솟은것을 들 수 있다.

산부인과의 한 전문의사의 입장에서 여성들의 미모에 왜 이러한 피부병과 변화가 임신 때에 잘 일어나는가? 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및 예방등을 상식적으로 기술하여 모성(母性) 또는 장차 임부(妊婦)가 될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관리·증진에 기여코저 하며 또한 질병예방 및 처치에 협조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 기미(褐色腫, 이상피부착색) : 임신 때에 가끔 얼굴과 목에 대소부동한 크기의 불규칙한 갈색 또는 흑색의 반점이 대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미 또는 임신가면 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다행이도 애기를 낳은 후에는 자연 소실되며, 혹은 적

임신때 생기는 반점은 아기 나면 저절로 없어지고 || || || || || || || || || || || || || || || || || || 자극홀몬에 원인 있는듯...뎁포주사 남용 주의해야

어도 대부분 퇴색된다 치료 없이 먹
 는 피임약도 어떤 여자들에 있어서는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약을 중단하고 다
 른 방식으로 대처하면 곧 소실되기
 때문이다.

기미의 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잘
 구명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임신
 제2개월부터 막달까지에 걸쳐서 생성
 되는 멜라닌(黑色) 세포 자극홀몬에
 원인될 것이라고 본다. 그뿐 아니라
 임신 때에 생리적으로 태반에서 많이
 나오는(분비) 에스트로젠과 황체홀몬
 도 얼굴을 검게 착색시키는 소위 메
 라닌(黑色) 세포 자극홀몬을 많이 축
 진, 생성시키기 때문이라고 본다.

가끔 여성들간에는 여러가지 이유
 즉 불임증 치료, 또는 얼굴에 여드름
 등 치료 운운하여 에스트로젠(여성홀
 몬) 성분이 들어있는 뎁포주사, 스틸
 베스테롤과 이러한 홀몬이 들어 있는
 비타민제, 혹은 황체홀몬 제제를 불
 필요하게 또는 남용치 않도록 주의해
 야 할 것이다. 그것은 기미 예방문제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역시 산부인과 전문의사와
 의 좋은 상담이 필수적일 것이다.

2. 임신선(妊娠線) : 임신 말기(7,
 8,9개월)에 임부의 배(복부)와 혹은
 젖가슴 및 허벅다리(대퇴) 피부에 약

간 함몰된 적색선 즉 붉은 줄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임신선(妊娠線)이라고 말한다. 이런
 피부 변화는 전체 임신부의 약반수
 (50%)에 생긴다. 아기를 과거에 낳
 은마 있는 경산부에 있어서는 이런
 붉은 선 옆에 과거 임신선의 흔적(홍
 터)인 흰은선(銀白線)이 같이 나타나
 있다.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써 아
 기를 낳은 후 배가축이 늘어났다고 근
 심하며 부대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것은 치료할 필요가 없으며, 산후 1
 개월 반이 지나면 홀몬작용으로 자연
 올라 붙을 것이다.

3. 모반(母斑) : 혈관이 확대되어
 작은 거미형태로 보이는 붉은 점인데
 임신부의 약 10%~60, 70%에 있어
 서 주로 얼굴, 목, 가슴과 팔에 잘 나
 타나는 수가 있는데 일과성이다.

4. 손바닥의 홍반(紅斑) : 약 1/3의
 임신부는 손바닥의 혈관이 확대되어
 붉게 보이며 확끈 단다(열감). 이 홍
 반과 상술한 모반은 자주 동시에 발
 생하지만 산후에는 곧 소실되며 큰 문
 제가 되지 않는다. 홍반과 모반은 모
 두 에스트로젠 홀몬이 임신때 생성하
 기 때문이다. 실내온도를 신선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5. 흑색종(黑色腫) : 검은 사마구
 같은 것인데 임신 때에 악성(암)으로

妊娠腺은 임신부의 50%에서 經産婦에 흉터가 모반은 주로 얼굴 목에, 흑색증은 아기에게 옮겨

변할 수 있으므로 몸에 생겨서 자극 된다는가 음부와 발에 생긴 것과 커지는 것은 곧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흑색증은 태반을 통하여 모체에서부터 아기에게 전위(옮겨가는) 되기 쉬운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6. 소양증: 임신으로 인하여 배, 음부 또는 전신에 가려움증이 심할 수 있는데, 다른 원인 유무도 잘 감별, 진찰받아야 한다(예로써 당뇨병과 황달의 시초인지?).

7. 여드름(痤瘡): 보통(심상좌창) 여드름은 피부의 땀과 기름 구멍(腺)에 생기는 일종의 만성염증으로써 비지나, 고름이 들어있는 것이다. 보통 얼굴에, 혹은 머리, 앞가슴과 어깨부위에도 생긴다. 여드름은 임신 때문에 생기지는 않는다. 본인이 이화시대 산부인과에서 경험한 한 임부는 임신 때마다 안면과 목에 큰 여드름이 두드러기처럼 일어나서 좀 고생하다가 아기만 낳으면 곧 자연소실되므로 다행이었다. 아마도 임신중에 여드름을 가졌던 사람은 임신시 홀몬관계로 감정적으로 악화하는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사춘기(18세 전후)부터 시작하여 30세경에 없어진다. 내시나 거세한 사람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한다. 남성홀몬주사는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다. 그의 초코렛 등 과민한 식

품과 과식(밥), 균 염증에 잘 걸리는 사람, 비타민 A, B 및 D가 부족할 때도 생기는 등 그 소인은 무궁하다. 성홍몬장애 즉 월경불순도 관계 있다.

치료예방: 약비누에는 유허과 테솔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좋다. 「포스텍스크림」, 「도메린삼푸」(美) 등으로 매주 2회 정도 세척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부레밍크」액은 2 큰 수팔을 1,000cc 온수에 타서 수건을 적셨다가 짜서 화상없게 1분간씩 찜질을 20분간 계속한다(매주 2회). 여드름은 손으로 짜지 말것. 흉터가 생기기 때문이다.

고름은 의사가 제거하도록 한다. 기름이 많은 화장은 피한다. 「페니시린」이나 「간트리신」 이외의 항생제는 심하지 않는한 삼가한다. 「에스트로젠」은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단백질 을 많이 먹고 기름기와 밥은 적게 먹는다.

초코렛, 락화생, 땅콩버터, 과량의 우유와 버터도 적게 취한다. 과실과 비타민은 자유로 먹으면 좋다.

X선 치료는 피한다(재해). 적당한 일광욕과 정신적 휴식은 좋을 것이다.

<필자=이화외대 산부인과 교수·의박>